홍석주의 시론 연구*

정대림**

1. 머리말
2. 시의 본질
3. 시의 작법
4. 시의 기능
5. 맺음말

1. 머리말

비평가로서 淵泉 洪奭周 (1774～1842, 영조 50～헌종 8)의 시에 대한 관심은 주로 시의 근원을 밝히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의 본질 탐색에 노력하면서 그에 따른 시 작법의 기본 바탕과 시의 기능을 찾는 작업에 열중한 비평 자료들을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들 비평 자료들을 분석 검토하여 연천 시론의 진면목을 찾아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연천은 1795년(정조 19) 式年 文科에 甲科로 급제한 이래 비교적 평탄한 관료의 길을 걸어 도승지, 양관 대제학, 이조 판서, 병조 판서, 좌의정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어려서부터 독서와 저술을 좋아하였던 그는 40여년을 관료생활로 보내면서도 『淵泉集』을 비롯하여 저서와 편저를 많이 남겼다.[1] 이렇게 활발하였던 저술 활동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학문과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거니와, 그 결과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

* 이 논문은 2008년도 세종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현재 남아 전하는 저서는 『尙書補傳』, 『東史世家』, 『續史略翼箋』, 『福壽雙會』, 『鶴岡散筆』, 『記里經』, 『三漢名臣贊』, 『彙史小贊』, 『洪氏讀書錄』, 『永嘉三怡集』, 『豊山世稿』, 『象藝薈粹』 등이다.

www.kci.go.kr

고문가의 대열에 설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2)]

지금까지의 연천에 관한 연구를 문학 방면에 국한시켜 보면 한시에 관한 연구[3)]와 고문론, 문학론, 문학관, 시론 등의 비평에 관련된 연구[4)]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비평에 관련된 업적들 가운데 다시 시론에 관한 내용만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신호는 性情·天機論을 중심으로 한 「연천 홍석주의 문학관」에서, 연천의 사상적 主脈이 천기론에 닿아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획일적인 규범이나 꾸밈새를 극복해서 건강하고 발랄한 生來的인 정감을 되찾으려는 문학 행위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종욱은 「홍석주의 『鶴岡散筆』에 나타난 문학론 연구」에서 性情 우위의 感人的 효용의 중시와 達意論과 興觀群怨論에 주목하여 연천의 시론을 검토하였다. 이 두 논문은 연천의 『鶴岡散筆』에 수록된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인데, 이들 차별성 있는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연천의 <原詩>라는 문장에 주목하여, 정대림은 「홍석주의 <원시>에 대하여」에서 연천의 시론 양상을 삼갈 대상으로서의 시, 하늘과 인간의 조화로서의 시, 『시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율시 비판, 작시 정신 등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살폈다. 또한 최신호는 「홍석주의 <원시>에 있어서

---

2) 滄江 金澤榮이 抄選한 『麗韓九家文選』에 연천의 문장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아도 古文家로서의 그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3) 임종욱, 「연천 홍석주론」, 『조선 후기 한시 작가론 2』, 이회문화사, 1998.
권오순, 「연천 홍석주의 한시 연구」, 『한문고전연구』 6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0.

4) 최신호, 「연천 홍석주의 문학관 」, 『동양학』 13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3.
김철범, 「연천 홍석주의 고문론 」, 『한국한문학연구』 12집, 한국한문학회, 1989.
정민, 「연천 홍석주의 학문 정신과 고문론」, 『한국학논집』 16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9.
정대림, 「홍석주의 <원시>에 대하여 」, 『한문학논집』 10집, 단국한문학회, 1992.
최신호, 「홍석주의 <원시>에 있어서 시발어정의 문제 」, 『한국한문학연구』 19집, 한국한문학회, 1996.
김철범, 「홍석주 고문의 예술적 특징 」, 『한국한문학연구』 22집, 한국한문학회, 1998.
임종욱, 「홍석주의 『학강산필』에 나타난 문학론 연구 」, 『한국문학연구』 21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9.
박재경, 「홍석주의 학문 경향과 문학론 」, 서울대 석사논문, 2003.
강석중, 「홍석주의 『학강산필』에 나타난 문학관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37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3.
금동현, 「19세기 전반기 산문 이론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 『동방한문학』 25집, 동방한문학회, 2003.

www.kci.go.kr

詩發於情의 문제」에서, 연천의 詩發於情論이 인공을 배제하고 사람의 소리에서 시를 구하는 지극히 원시적 발생론이었다고 하면서, 시어를 꾸미는 데 치중하거나 정을 억압하고 간섭하는 데 빠져 들었던 시 창작의 풍토를 개선하고자 한 노력의 소산이었다고 하였다. 사실 原이라는 문체는 어떠한 일의 근원을 철저하게 파헤쳐 그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형식의 글이다. 따라서 시의 근원을 살핀 <原詩>의 내용과 함께 위의 논문들의 논지는 이 글의 논의를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 연천의 시론을 검토하고자 하면서 주목한 것은 그의 시론의 기본 바탕을 제시한『鶴岡散筆』에서의 다음 예문이다. 이 예문은 앞서 살펴본 최신호와 임종욱의 논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 시라는 것은 情性에 기본을 두고 天機에서 발원하는 것이다. 시의 의미는 진지해야 하고 시어는 조리 있게 통해야 하며 시의 기상은 막힘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시의 쓰임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하고, 시의 功은 興勸懲創에 귀착되며, 시의 효과는 移風易俗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5]

이렇게 연천은 시론의 大綱을 간추려 언급하였다. 이는 그가 생각했던 시론의 전체 윤곽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리하여 '本乎情性 發乎天機'는 시의 본질을, '意, 辭, 氣'와 관련된 내용은 시 작법의 기본 바탕을, 그리고 '用, 功, 效'에 속한 내용은 시의 기능을 각각 밝혀 제시한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연천 시론의 진면목을 찾아보도록 하겠다.[6]

사실 이 자료가 수록된『학강산필』은 연천이 비교적 평탄했던 관료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長湍의 墓舍와 楊洲의 廣津에 머물던 은퇴기(1837～1842)에,

---

5) 詩之爲文 本乎情性 發乎天機 其意眞摯 其辭條達 其氣流動 其用則以感人爲主 其功歸於興勸懲創 其效至於移風 易俗(洪奭周,『鶴岡散筆』, 권4, 5. 이하 본문에서 이 예문의 부분 제시는 ' '로 내용을 나타내고, 별도의 주를 달지 않을 것이다. 또한『학강산필』에서 뽑은 자료일 경우 별도의 각주 없이 ( ) 속에 권수와 쪽수만 밝힐 것이다.

6) 최신호는 연천의 문학관을 살핀 앞의 논문에서 이 자료가 시의 본질, 내용과 형식, 목적과 공효, 수사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연천 시론의 종합적 성격을 검토하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性情・天機 문제가 그의 문학관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www.kci.go.kr

지난날의 견문이나 독서에서 얻은 그의 학문 전반에 걸친 생각들을 잡록 형식으로 엮은 책이다. 따라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나 중국의 문학, 역사, 철학, 인문, 시사 등의 다방면에 걸친 방대한 내용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결산해 놓은 책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위의 인용에서 언급된 내용은 오랜 시작 활동과 시론과 시평 중심의 비평 작업을 결산하면서 간추린 연천 시론의 귀중한 결실로 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이 자료를 기본 자료로 하여 연천 시론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시도하는 것은 일단 자료적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논의를 보완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학강산필』에 수록된 여타의 자료 및 그의 문집인 『연천집』에 실려 있는 <원시>를 비롯한 다른 비평자료들도 필요에 따라 활용하게 될 것이다.

2. 시의 본질

시의 본질에 대한 연천의 생각을 앞의 자료에서 언급된 '本乎情性 發乎天機'에서부터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 시는 情性 곧 性情에 근본을 두고 天機에서 발원하는 것이라는 그의 생각이 시의 본질의 내용을 밝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천의 생각을 두고 최신호는 연천의 문학관을 검토하면서 성정의 뜻을 '타고난 본성' 또는 '시적 정서'로 보고, 천기의 의미를, '천지조화의 심오한 비밀' 또는 '천성 본래의 眞性' 정도로 보아 성정과 천기가 '인간의 본성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연천 문학사상의 핵심이 성정 또는 천기론에 집약되었다고 하면서도, 주된 논의의 방향은 천기론적 측면에서 연천의 문학관을 검토하는 것이었다.[7]

그런가 하면 연천의 그와 같은 생각에 대해 임종욱은 성정 우위의 문학론이라 언급하면서도 그에 대한 명확한 논의를 보여 주지는 못했다.[8] 이처럼

7) 최신호, 「연천 홍석주의 문학관 」, 앞의 논문집, 75~85쪽 참조.
8) 임종욱, 「홍석주의 『학강산필』에 나타난 문학론 연구 」, 앞의 논문집, 215쪽 참조.

www.kci.go.kr

기왕의 논의에서는 시의 본질에 대한 연천의 생각을 성정과 천기에서 찾고자 하면서도, 각각의 견해에 따라 성정과 천기를 결국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쯤으로 인식하거나 경중을 가려 이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性情과 天機에 대해 그 의미부터 분명히 파악해야 연천의 시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의 근본을 성정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나 우리의 고전 비평에서 전통적으로 주목받아 왔다.

> 시는 마음이 흘러가는 바를 적은 것이다. 마음속에 있으면 志라고 하고 말로 표현되면 시가 된다. 情이 마음속에서 움직일 때 시인은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9]

이렇게 시는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志'가 말로 표현된 것이라 했다. 그 '지'라고 하는 것은 곧 마음속에 있던 '情'이고, 그것이 움직일 때 말로 표현한 것이 시라는 것이다. 시의 근본이 性情에 있고 그 성정을 담는 그릇인 心의 표현이 시가 되는 셈이다. 직접적으로, "시는 성정을 읊는 것이다."[10]라고 嚴羽(1180 전후~1264)처럼 언급하지는 않았어도, 시의 근본을 이렇게 지의 표현, 성정의 표현, 심의 표현으로 파악하는 것은 시를 개인적 정서의 표현으로 보는 견해의 범주 안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비평 자료에서, 시가 마음의 표현이라든지,[11] 시가 성정의 잡을 수는 없으나 불가사의한 곳으로부터 표출되는 것이라고 한 데서도[12]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시가 성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 것이나[13] 시는 정에 감응하여 소리로 나타나게 된다든지,[14] 시는 마음에 바라는 바를 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나타내야만 달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15] 등에서도 시의 근본을 성정에서 찾고자 하였던

9) 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情動於中 而形於言(『詩經』, <大序>)
10) 詩者 吟詠情性也(嚴羽, 『滄浪詩話』)
11) 詩者 心之發(徐居正, 『東人詩話』)
12) 詩者 出自情性虛靈之府 (柳夢寅, 『於于野談』)
13) 詩以道性情(李宜顯, 『陶谷集』, 권27, 「雜著」)
14) 詩者 感於情 而形於聲者也(南公轍, 『金陵集』, 권13, <題李元履顯綏詩後>)

www.kci.go.kr

견해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연천은 또한, “말은 情의 표현인데, 시는 더욱 그러하다.”[16]라고 해서 시가 정의 발현임을 분명히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중국이나 우리 고전 비평의 흐름 속에서 시의 근본을 性情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는 보편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연천도 시의 근본을 성정에서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성정의 의미를 타고난 성품, 성질, 심정, 본성으로 보고 그것이 시인의 시적 정서, 시심, 시의식에 다름 아니라고 보면, 시의 근본이 성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가 시인의 시적 정서, 시심, 시의식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된다. 결국 연천은 타고난 성품에 바탕한 시의식의 표현을 시의 근본이라고 파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시의 본질에 대한 연천의 생각은 이에 멈추지 않고 ‘發乎天機’로 이어진다. 시는 天機에서 發源한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시가 천기를 발원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천기의 개념 규정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천기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각도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의 연구 성과인 다음 인용문에 그 내용이 비교적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 천기는 천체의 운행 곧 ‘天行’을 가능하게 하는 ‘천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樞機’이다. ‘천기’는, 그것이 작동되어 천체가 운행함으로써 ‘天道’나 ‘天理’가 행해지도록 하며 ‘天命’이나 ‘天意’가 세상사와 인간사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펼쳐지도록 하는, ‘天體의 樞機’ 곧 ‘베틀’의 ‘틀’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천기’는, 때로는 세상의 물정에 밝아 ‘자연의 이치를 참되게 터득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로도 쓰였으며, 깊은 역사의식이나 현실인식으로써 그 ‘천기를 알아보는 안목’을 일컫는 말로도 쓰였다. 그리고 혹은 ‘천기의 발로’나 ‘천기의 발동’을 일컫는 말로도 의미가 다소 확장되어 쓰였다.[17]

---

15) 詩者言志 故心之所之 惟詩可達觀(李瀷, 『星湖先生全集』, 권49, <詩經疾書序>)
16) 言者情之發也 而詩爲尤然(권3, 11)
17) 정요일, 「천기의 개념과 천기론의 의의 」, 『한문학의 논리』, 일조각, 2009, 99쪽.

www.kci.go.kr

이렇게 천기의 개념을, 天體의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樞機, 곧 천체가 운행하여 天道나 天理가 행해지고 天命이나 天意가 세상사와 인간사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펼쳐지도록 하는 천체의 중추가 되는 機關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세상의 물정에 밝아 자연의 이치를 참되게 터득하는 경우'나 '깊은 역사의식이나 현실인식으로써 그 천기를 알아보는 안목'을 일컫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기도 하였다. 그리고 '천기의 발로'나 '천기의 발동'을 일컫기도 한다고 하였다. 연천의 천기에 대한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 시는 하늘에서 나왔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합하여 광대하게 끝없이 어리고, 때맞추어 바람 불고 비 내리며, 자연 삼라만상의 정화를 취하고, 온갖 물건의 형상이 형성되었다가 유전하는 것이 天機이다. 그것이 마음에 촉발되어 仁義禮智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실마리를 이루면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도 왕성하게 참다운 天機가 사람을 감동시키게 된다.[18]

이렇게 天機는, 크고 넓은 광대한 원기로 말미암아 바람불고 비 내리는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물의 정수가 갖추어지고 온갖 물건의 형상이 형성되었다가 끊임없이 변천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우주의 도와 자연의 이치 그리고 인간 세상 모든 사물의 변화 그 자체가 천기이며, 그것이 인간 마음 속 인의예지의 성정의 실마리에 촉발되면 자연스럽게 참다운 천기가 표현되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연천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개벽 이래 오랜 세월 동안 춘하추동 사시의 질서가 어긋난 적이 없고, 인의예지의 실마리와 희노애락의 발현 또한 변화된 적이 없는데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나타난 천기의 본 모습이 시에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9]

---

18) 詩者出乎天者也 絪縕蕩軋 風雨時行 浚其精華 流爲品物 天之機也 有觸其中 惻羞以類 不思不度 藹然其眞天機之動乎人也(洪奭周, 『淵泉集』, 권18, <擬古詩序>)

19) 故由混元以迄于今 六萬八千九百餘歲 而春秋冬夏四時之序 未嘗忒也 由開物以迄于今 四萬七千三百餘歲 而仁義禮智之端 喜怒哀樂之發 亦未嘗殊也 奚但是而已哉 雖前乎此億千萬世 後乎此億千萬世 亦惟如是而已矣 夫其變者人也 未嘗變者天也 詩者出乎天者也 故曰詩未嘗有古今之變也(위의 글)

www.kci.go.kr

천기에 대한 연천의 생각이 이러할진대 앞서 천기를 '천체의 추기'로 본 견해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天機는 시인의 시의식을 자극하는 요소로서 시인이 우주, 자연, 사회에 대한 성찰에서 얻어낸 우주관, 자연관, 세계관의 발현 자체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우주의 신비나 자연의 섭리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 도리 등등의 시인의 통찰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천기의 내용이 된다고 하겠다. 우주의 도와 신비를 밝히고, 자연의 섭리를 터득하고 자연의 생명력에 감응하면서, 정확한 현실인식으로 삶의 진실을 바로 살피고 인간의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펼쳐 놓은 것이 곧 天機의 세계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연천이 시가 천기를 발원으로 한다고 한 것은, 결국 시에는 우주의 도와 신비가 드러나야 하고 자연 삼라만상의 이치와 인간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파악되는 삶의 진실 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된다. '천체의 추기'와 같은, '베틀의 틀'과 같은 그러한 천기를 발원으로 한 것이 시라고 연천은 생각하였던 것이다.

연천이 시의 본질로 언급한 性情과 天機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시가 성정을 근본으로 하고 천기를 발원으로 한다는 연천의 견해를 두고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정과 천기의 연결 고리에 비중을 두고 천기론 중심으로 파악하거나 단순히 성정 우위의 견해를 피력하는 등의 관점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기는 하면서도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천이 생각한 시의 본질은 성정과 천기의 조화,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완벽한 구도 속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천기 곧 우주의 진리, 자연의 이치, 인간사 모든 삶의 진실 등을 포함하는 시인의 내적 외적 조건과 환경 등의 시적 소재가 주는 감흥이나 영감이, 성정 바로 타고난 성품에 바탕한 시인의 시의식을 자극하여 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연천의 생각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천의 생각, 천기가 촉발하여 성정을 표현한 것이 시의 본질이라고 파악한 그의 생각은 성정과 천기의 조화에서 시의 본질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 삼백 편 이후로 천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비록 체제의 높고 낮음이 다르고, 감정의 그릇되고 바름이 차이는 있어도 시가 결국 性情에 근본을 두고 天機에서 발원한 것이라는 점은 마찬가지다. (…) 그 출발이 성정에 근본하지 않고 그 발원이 천기에서 연유하지 않았으니,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애쓴들 어찌 비슷한 것이라도 얻을 수 있겠는가.[20]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시 작품들이 생산되어 사람들을 감동시켜 왔지만 그 시들의 체제와 감정 표현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근본이 성정에 있고 시의 발원이 천기에 있음은 모두 같다고 연천은 언급하였다. 이어서 연천은 작시에 있어서 對偶가 성행하고 格律이 엄정해지면서 아름다운 말로 꾸미는 데 열중하고 用事에 힘쓰며 까다로운 韻을 바탕으로 공교로움을 다툰 결과, 짜맞추고 꾸미는 일이 우세해지고 興觀群怨의 시의 효용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때문에 시들의 출발이 성정에 근본하지 않고 천기에서 연유하지 못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보면 시의 '出'이 성정에 근본해야 하는 것이고 시의 '發'이 천기에서 연유해야 한다는 것이 연천의 생각이어서, 시의 '出發'을 성정에 근본하고 천기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정과 천기가 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성정과 천기가 출발하여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는 바로 시일 것이다. 그리하여 시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정과 천기가 시의 근본이 되고 발원이 되어 서로 어울려 출발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정과 천기의 조화이든, 천기가 촉발한 성정의 표출이든 그것은 분명 시의 본질 문제에 성정과 천기가 같은 비중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의 다른 문인들 역시, "시는 성정의 발로이며 천기의 발동이다."[21]라고 하거나, "(시경의 시들은) 인간의 情志를 서술하고, 천기에서 발원한 것이다."[22] 라고 하여, 시가 성정과 천기의 조화의 산물임을 나타내었

20) 自三百篇以後 千有餘年之間 雖高下異體 邪正殊感 其詩之本乎性情 發乎天機則一也 (…) 其出也 不本乎性情其發也 非由乎天機 求其能感人也 安可得其彷彿哉(권3, 8)
21) 詩者 性情之發而天機之動也(金昌協, 『農巖集』, 권34, 「雜識」, <外篇>)

www.kci.go.kr

다. 이는 연천의 생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렇게 연천은 조선 후기 다른 문인들의 생각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 시의 본질을 性情과 天機의 조화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연천은 천기가 촉발한 성정의 표출로 빚어진 시, 성정과 천기를 출발점으로 하여 내달린 목적지로서의 바로 그 시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의 본질에 대한 연천의 생각은 바로 작시의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성정과 천기의 조화가 작시 과정의 첫 단계임은 다음 인용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마음속의 영감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육신에 간직되어 있다가 천기에 촉발되어 생성되면서 정신과 천기가 합하여 음률에 호응하면 시가 이루어진다.[23]

시인의 영감이 소리로 간직되어 있다가 천기에 촉발되어 시로서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마음의 정수인 영감에 천기가 촉발되어 곧 정신과 천기가 어울려 화합하여 음률에 호응한 것이 시가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마음, 영감, 정신으로 일컬어진 것은 性情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면 洪良浩(1724～1802)는 性情과 天機의 조화가 작시과정의 첫 단계임을 말해주었다고 하겠다.

> 작품을 쓰려면 먼저 경전을 읽어 학문의 기초를 쌓은 다음에, 과거의 역사 문헌들을 섭렵하여 치란흥망의 근원을 알아내는 한편, 실천적인 학문에도 힘써 선배들의 경제에 관한 저서를 두루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마음이 언제나 백성들에게 혜택을 끼치고 만물을 보호 발육시키려는 사상을 지녀야만 바야흐로 글 읽는 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된 연후에 혹은 안개 낀 아침, 달 뜬 저녁이나, 짙은 그늘, 보슬비 내리는 때를 만나면, 그 서려있던 감흥이 솟아나고 생각이 표연히 떠올라 자연스럽게 읊조리고

22) 敍其情志 發於天機(洪良浩, 『耳溪集』, 권10, <風謠續選序>)
23) 人心之靈 發而爲聲 聲藏於肉 機觸而生 神與機合 應律成章(洪良浩, 『耳溪集』, 권17, <詩解>)

www.kci.go.kr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천지자연의 소리로 유창하게 발현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 세계의 생동하는 경지이다.[24]

여기서 丁若鏞(1762~1836)이 언급한 내용 가운데, 경전을 읽어 학문의 기초를 다지고, 역사 문헌을 섭렵하여 치란흥망의 근원을 파악하며, 선학들의 경제에 관한 저서를 살펴 실천적 학문에 힘쓰고, 백성들에게 혜택을 끼치고 만물을 보호 발육시키려는 사상을 지녀서 독서 군자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것은 바로 앞서 개념 정리한 天機의 의미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인의 내면에 축적된 학문과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의 결정인 天機에 더하여, 안개 낀 아침, 달 뜬 저녁, 짙은 그늘, 보슬비 내리는 때와 같은 시적 환경은 자연 삼라만상이 보여주는 천기의 또 다른 모습들이다. 이렇게 다양한 천기의 실체들이 시인의 性情에 바탕한 시인의 시의식을 촉발하면, 서려 있던 감흥이 솟아나고 생각이 표연히 떠오르게 되어 시 세계의 생동하는 경지인 자연스럽게 읊조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천지 자연의 소리로 유창하게 발현된 경지의 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약용 역시 천기가 촉발한 성정의 표현, 성정과 천기가 조화롭게 어울린 시의 출발 그것이 작시 과정의 첫 단계임을 분명히 일러준 것이라 하겠다.

나는 어릴 때 太華子에게서 시를 배웠다. 언젠가 소나무 아래서 쉬는데 바람이 불어오자 그는 흔연히 나를 돌아보면서, "그대는 바람의 성질을 알고 있는가. 무릇 바람이라 하는 것은 태공에 떠돌다가 사물에 다가가게 되면 소리를 내게 된다. 그러나 바람을 받는 사물의 성질이 굳세면 그 소리는 짐짓 그윽하고 맑게 들린다. 시를 쓰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해서 시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그 때 소나무 아래를 떠나 본 적이 없다.[25]

---

24) 必先以經學 立著基址 然後涉獵前史 知其得失理亂之原 又須留心實用之學 樂觀古人經濟文字 此心常存澤萬民育萬物底意思 然後方做得讀書君子 如是然後 或遇煙朝月 夕濃陰小雨 勃然意觸 飄然思至 自然而詠 自然而成 天籟瀏然 此是詩家活潑門地(丁若鏞, 『與猶堂全書』, 권21, <寄二兒>)

25) 余少學詩于太華子 子嘗憩松下 有風至焉 子欣然顧余曰 若知夫風乎 夫風遊於太空 薄於物 而後爲聲 然彼受之者 其性剛焉 故其爲聲 乃穆然而淸焉 爲詩亦猶是乎 余說是言也 每爲詩 其心

www.kci.go.kr

太華子 南有容(1696~1728)은 바람이 사물에 다가가면 소리를 내게 된다고 하면서 시를 쓰는 일도 이와 같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소리는 분명 시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주, 자연, 사회 등으로 지칭되는 공간에서 마주치는 대상 전체와 그 대상에서 얻어낸 도와 이치와 진실 같은 것들, 말하자면 시인의 시의식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이 바람에 비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天機의 내용에 다름 아니다. 천기가 곧 바람인 것이다. 그리고 바람을 맞이하여 소리를 내게 되는 사물은 천기가 촉발하여 시를 빚어내는 시인의 性情인 시인의 시의식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바람이 사물에 접촉하면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시인의 내면적 또는 외면적 환경, 그리고 시적 배경이나 소재가 불러 일으키는 감흥이나 그들에서 얻은 깨달음 등이 시인의 시의식을 자극하면 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바로 천기와 성정의 조화, 천기가 촉발한 성정의 표현이 이루어낸 시의 경지인 것이다.

연천은 결국 조선 후기의 다른 문인들의 생각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 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가 성정에 근본을 두고 천기에서 발원하는 것이라는 데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천기가 촉발한 성정의 표현, 성정과 천기의 조화의 측면에서 그 본질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생각은, 시인의 내외적인 환경과 시적 배경이나 소재와 그 바탕에서 얻어낸 우주관, 자연관, 세계관 등에서 비롯된 天機의 내용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시인의 性情을 바탕으로 하는 시인의 시의식을 촉발하여 한 편의 시가 이루어진다는 작시과정으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3. 시의 작법

연천은 시의 본질을 性情에 근본을 두고 天機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렇게 성정과 천기의 조화에서 시의 본질을 이해한 연천은 또한

未嘗不在松下也(南有容, 『雷淵集』, 권12, <漢魏晋詩選序>)

www.kci.go.kr

성정과 천기를 출발점으로 한 목적지가 바로 시라고 밝히면서, 천기가 촉발한 성정의 표현이 곧 시임을 언급하여 작시의 과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작시의 과정에 관심을 보인 다음 연천의 시선은 작시법으로 옮겨지고 있다. 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와 시 창작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한 관심에 이어진 것은 시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이제 천기가 촉발한 성정을 표현하는 작시 과정에서 연천이 생각한 구체적인 시의 작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천의 시의 작법은 '其意眞摯 其辭條達 其氣流動'이라고 한 앞의 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의 작법을 제시하면서, 시의 의미가 '眞摯'해야 하고, 시어가 '條達'해야 하며, 시의 기상이 '流動'해야 한다고 한 연천의 생각은 문장의 작법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 이치가 뛰어나고 문장이 통달한 데다가 기상이 창성하게 나타나 있는 것, 이것이 한유가 뛰어난 문장가가 된 까닭이다.[26]

이처럼 문장의 이치가 '勝'하고, 문장 표현이 '達'하며, 문장의 기상이 '昌'하였던 까닭에 韓愈(768~824)가 文宗이 되었다고 하면서 문장의 작법에서 '理勝, 辭達, 氣昌'을 내세워 기준으로 삼았던 연천이었기에, 시의 작법에서도 그렇게 '意眞摯, 辭條達, 氣流動'의 기준을 기본 바탕으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작시의 실제에 있어서 연천이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시의 의미의 설정 문제였다. 그리하여 시의 의미는 '진지'한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꾸밈없는 마음으로 솔직함 그대로 진실을 찾아 드러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시의 작법에서 의미 설정이 우선임을 밝히면서 그 의미의 내용은 '진지'함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연천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

26) 理勝辭達 而昌之以氣 此韓愈氏之所以爲文宗也 (권2, 19)

www.kci.go.kr

> 시는 의미를 주로 삼는다. 진실로 그 의미가 지극히 정당하여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다면 비록 韻字를 달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 가지 韻으로 사용할 글자가 없으면 다른 운자를 빌려 통하면 된다. 또 다른 운자조차 없다면 차라리 운을 달지 말아야 한다. 韻이 자신을 따르게 한 것이 옛사람들의 詩이고, 운자에 자신이 얽매이고 있는 것이 요즘 사람의 詩다.[27]

이는 明末 淸初의 비평가인 顧炎武(1613～1682)의 견해인데, 연천은 이에 동조하면서 시의 작법에서 의미를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극히 마땅하고 적절한 의미의 전달에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한시의 생명이기도 한 시의 운을 무시해도 좋다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비록 다른 비평가의 견해에 기대고는 있지만, 그만큼 연천에게는 시의 의미 설정이 시의 작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연천은 시의 의미를 중시하면서, '진지'한 시의 의미가 막힘이 없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지극히 마땅하고 적절한 의미 설정이 작시상 가장 우선하는 것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시뿐만 아니라 문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 문장은 뜻을 통달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뜻은 이치에 합당한 것을 귀중하게 여긴다.[28]

작문의 실제에 있어서도 의미의 통달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밝히면서, 연천은 그 의미가 이치에 합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연천은 시나 문장에서 모두 의미의 설정을 중시하면서 진지하고 이치에 합당한 의미가 막힘이 없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시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 시라고 볼 때, 그러한 시의 창작에 있어서 의미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李奎報(1168～1241)는, "시는 의미를 위주로 한다. 의미를 설정하는 것이 가

27) 詩以義爲主 苟其義之至當 而不可以他易 則雖無韻不害也 一韻無字 則旁通他韻 又不得於他韻 則寧無韻 以韻從我者 古人之詩也 以我從運者 今人詩也.(권4, 18)
28) 文以達意爲主 意以當理爲貴(권2, 22)

www.kci.go.kr

장 어렵고, 시어를 짜맞추는 것은 그 다음이다."[29] 라고 하여 시의 의미 설정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의미를 중시하는 이러한 작시 태도는 그 후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비중있게 다루어져 왔다.

시의 의미를 중시하는 이러한 견해는 중국 비평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송의 劉攽(1022～1088)은, "시는 의미를 위주로 하며 시어의 수식은 그 다음이다."[30]라고 해서, 이규보보다 훨씬 앞서 의미 중시의 시 작법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시의 작법에서 시의 의미를 중시하였던 연천의 생각은 우리나 중국의 고전 비평에서 보편적으로 논의되던 것이었다. 그러면서 연천은 그 의미가 '진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생각도 고전 비평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점은, 柳夢寅(1559～1623)이, "시어가 비록 솜씨 있게 꾸며졌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로 의리가 돌아갈 바를 잃었을 경우에는 시를 아는 사람들이 취하지 않는다."[31]고 하였다든지, 尹春年(1514～1567)이, "시의 의미가 어리석고 거짓되면, 그 시는 볼만한 가치조차 없다."[32]고 하여, 시의 의미가 의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거짓 없이 진지해야 함을 내세운 것들을 미루어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劉勰(465～532)이, "情을 나타내기 위해 수식할 때는 간결하면서도 진실해야 한다."[33]고 한 이래, "무릇 시문은 眞意를 위주로 한다. (…) 따라서 시문을 지을 때는 眞情을 위주로 해야 한다."[34]든지, "몇 년 동안 시를 짓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한 편이라도 진실하지 않게 지어서는 안 된다."[35]든지, "眞은 시의 뼈대이다, 감정이 참되고 경물이 참되면 지은 작품은 반드시 아름답다."[36]라고 한 등의 견해에 그러한 점은 잘 나타나 있

29) 夫詩以意爲主 設意最難 綴辭次之(李奎報, 『白雲小說』)
30) 詩以意爲主 文詞次之(劉攽, 『中山詩話』)
31) 雖辭語造其工 而苟失其義所歸 則知詩者不取也(柳夢寅, 『於于野談』)
32) 其意愚妄 則其詩不足觀矣(尹春年, 『詩法源流體意聲三字註解』)
33) 故爲情者 要約而寫眞(劉勰, 『文心雕龍』, <情采>)
34) 凡詩文 皆以眞意爲主 (…) 故凡作詩文 皆以眞情爲主(薛瑄, 『讀書錄』)
35) 詩可數年不作 不可一作不眞(劉熙載, 『藝概』)
36) 眞字是詞骨 情眞景眞 所作必佳(王國維, 『人間詞話』)

www.kci.go.kr

다. 시가 진실해야 하고, 眞意를 위주로 眞情을 표현해야 하며, 진실하지 않은 시를 지어서는 안 되고, 감정이나 경물이 참되면 좋은 시가 지어진다든지 하는 등에서 보면, 그들이 시의 의미가 '진지'해야 한다고 한 연천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의 의미가 '진지'해야 한다는 연천의 시의 작법의 한 가닥이 우리나 중국의 고전 비평의 큰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시가 세상을 가르치는 데에 도움되는 일이 없다면, 또한 어찌 배우의 자잘한 기술이라는 지목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37]라든지, "대개 古人들은 사리에 어두운 것을 계몽하여 명백히 밝히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쳐 일깨워주는 것을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시의 임무로 삼았다."[38]라고 해서, 연천은 시 작법의 실제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의 의미가 '진지'해야 하며 그 '진지'한 시의 내용이 '世敎'에 도움이 되고 '發蒙牖迷'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면 연천은 시의 작법에서 시의 의미는 '진지'해야 하며, 그 '진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는 교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 작법의 실제에서 연천이 시의 의미 다음으로 관심을 보인 것은 '其辭條達'이라 하여 시의 언어가 조리 있고 통달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에서 보여준 시어의 문제이다. 사실 시의 의미의 '진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어의 '조달'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리 있는 시어와 시에 담고자 하는 의미를 올바르게 통달할 수 있는 시어의 구사 없이 '진지'한 시의 의미 전달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연천은 시어의 조탁이나 수사법, 표현 기교 등의 문제는 관심 밖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된 관심은 시의 '진지'한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조리 있고 통달한 시어의 선택에 있었던 것이다. 이점은 문장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연천은, "외교관이 가서 하는 말은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할 따름이다."[39]라는 孔子의 말에 주목하면서, 옛날 성인들이 문장에 뜻을 두지 않았으나

37) 詩而無補于世敎也 則亦安得辭俳優小技之目哉(권4, 1)
38) 蓋詩者 古人發蒙牖迷之首務(권3, 10)
39) 子曰 辭達而已矣(『論語』, 「衛靈公」)

www.kci.go.kr

문장의 성대함이 성현과 나란히 할 사람이 없는 것은 오직 뜻을 알리기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어렵고 어두운 것을 그윽하다고 하나 뜻이 전달되지 않고, 꾸미는 것을 공교하다고 하나 뜻이 전달되지 않으며, 펼쳐 늘여 놓는 것을 넉넉하다고 하나 뜻이 전달되지 않고, 또한 단장하여 윤기 나는 것을 곱다고 하나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제대로 뜻을 알린다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이 하늘에 걸려 있어 눈이 있는 사람은 모두 볼 수 있는 것과 같고, 큰 교차로가 사방에 소문이 나 있어 발 달린 사람은 모두 갈 수 있는 것과 같으며, 동물과 식물, 날짐승, 물짐승 같은 것들이 각각 제 모습을 드러내어 인위적인 꾸밈을 용납하지 않는 것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40]

연천은 孔子의 '辭達'에 대한 언급이 화려한 수식을 반대하고 질박한 문장을 추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이른바 達意論이라 할 수 있는 그의 문장론을 펴면서 인위적인 조탁에 대하여는 역시 부정적 시선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뜻이 창달하여 펴지면 이치가 밝아지고, 말이 순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된다. 옛사람들이 문장 쓰는 것은 이와 같을 뿐이다."[41]라고 하여, 전통적인 유가들의 주장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시에 견주면, 시의 의미가 창달하여 펴지면 시의 이치가 밝아지고 시어가 순하고 자연스럽게 갖추어지면 사람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이렇게 達意에 초점을 둔 문장론을 피력하였던 연천이었기에, 작문하면서 기이함을 추구하여 기험한 말을 만들어 쓰는 造語보다는 이치에 맞는 바른 말을 세우는 立言이 바른 태도임을 내세우면서도[42]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이 造語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

40) 子曰 辭達而已矣 古之聖人未嘗有意於文 而文章之盛亦莫與聖賢並者 唯其達而已 艱晦以爲奧 非達也 組織以爲工 非達也 鋪衍以爲富 非達也 粉澤以爲麗 非達也 如日月之麗天 而有目者皆可覩也 如康莊之四闢 而有足者皆可行也 若動植飛潛之各呈其形 而無所容於作爲也 若此之謂(권5, 38)

41) 意暢而理明 辭順而人易曉 古之爲文者 如是而已(권4, 4)

42) 造語與立言不同 達意以言 言自中理 前人之所未及發 而後之人奉爲典訓 若此者所謂立言也 求奇於字句之間 標新於前載之外 非理是主 而唯辭之是治 此所謂造語也(권2, 18)

www.kci.go.kr

> 글은 뜻을 전달하는 것을 중시하고, 뜻은 이치에 합당한 것을 귀히 여긴다. 이치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 옛사람의 말을 사용해서 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면, 옛날의 말을 써도 된다. 진실로 나의 뜻을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말한 것이 없다면, 말을 만들어서 써도 된다.[43]

이렇게 '達意'에 바탕을 두면서도 문장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造語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시에 있어서 화려하게 수식하고 치장하여 성령이 가리우고 잘 짜맞추기만 하여 천진을 잃어버린 폐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44] 그리하여 시의 造語에만 치중하여 시어가 화려하고 번듯하게만 짜인 시들은, 이른바 '性情'에 근본하고 '天機'에서 발원하여 의미가 '眞摯'하고 시어가 '條達'하며 기상이 '流動'하는 시, 그리고 그 쓰임이 '感人'하고 그 공이 '興勸徵創'에 돌아가며 그 효과가 '移風易俗'에 이르는 그러한 시가 아니라고 연천은 생각하였던 것이다. 시어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려하고 번드레하게 짜인 시어보다는 시의 의미가 '진지'하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그 시어가 조리 있고 올바르게 통달될 수 있는 그러한 시어를 선택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 작법에서 이런 시어 선택의 중요성은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 시를 짓기 위해 고심하면 생각이 깊게 된다. 생각이 깊어지면 이론이 해박해지고, 이론이 해박해지면 언어가 새로워진다. 언어가 새롭게 되고도 중지하지 않고 노력하면 공교하게 된다. 공교하면서도 그치지 않으면 귀신도 두려워하게 할 수 있고 조화를 옮겨 나타낼 수도 있다.[45]

여기서 시를 짓기 위해 고심하여 읊조리면 생각이 깊게 되고 생각이 깊어지면 이론이 해박해진다고 하였는데, 이 단계는 연천이 언급한 시의 '진지'

---

43) 文以達意爲主 意以當理爲貴 理者無古今之異者也 用古人之語 而可以達吾意 則用古語可也 苟吾意之所欲言 而古人有未及言者 則造語亦可也(권2, 22)
44) 粉澤盛而性靈隱 組織工而天眞喪 其弊則自靈運倂(권4, 5)
45) 夫吟苦則思必深 思深則理必該 理該則語必新 新而不已則工 工而不已 則可以慴鬼神 而移造化矣(金祖淳, 『楓皐集』, 권16, <書金明遠畊讀園未定稿後>)

www.kci.go.kr

한 표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해박한 이론이 진지한 시의 의미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론이 해박해진 다음 과정이 시어가 새로워진다는 단계다. 이는 '조달'한 시어의 선택, 시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한 조리 있고 통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어의 탐색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새로워진 시어를 선택하여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시의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한 다음에도 멈추지 않고 노력하면 좋은 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金祖淳(?~1831)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좋은 시를 얻고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귀신도 두려워 떨게 하고 조화를 옮겨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시를 얻을 수 있다고도 하였다. 결국 김조순은 최고의 시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시어의 연마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진지'한 시의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조달'한 시어 선택에 관심을 기울였던 연천과 생각을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무릇 시를 지으려면 갈고 다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는 詩意를 가다듬어야한다. 詩意에는 드러나지 않거나 무딘 것, 엉성하거나 뒤떨어지는 것이 있다. 둘째는 詩句를 가다듬어야 한다. 시구에는 생기가 없고 멀겋고 자잘하고 난삽한 것을 제거해야한다. 셋째는 詩語를 가다듬어야 한다. 시어에는 시구의 의미를 흐트러뜨리고 긴밀함과 산만함을 혼동케 하는 것이 있다. 이상에서 말한 세 가지 경우는 어느 것이나 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46]

唐의 시인 徐寅은 이처럼 작시에서 詩意와 詩句를 갈고 다듬는 노력에 이어 詩語의 연마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시의와 시구와 시어 어느 것 하나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부족함 없이 연마해야 좋은 시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역시 '진지'한 시의 의미를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 '조달'한 시어의 선택에 관심을 기울였던

46) 凡爲詩須積磨煉 一曰煉意 意有暗鈍粗落 二曰煉句 句有死機 洗淨瑣澁 三曰煉子 字有解句義同緊慢 以上三格皆須微意細心 不得容易(徐寅, <我道機要>)

www.kci.go.kr

연천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 毛先舒이 말하였다. 詞를 짓는 사람은 마땅히 뜻은 깊고 언어 표현은 잘 어울려지도록 지어야 한다. 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무릇 뜻이 깊은 경우는 표현을 지나치게 깎고 다듬은 흔적을 남기기 쉽고, 언어 표현을 잘 어울려지도록 하는 경우는 뜻이 얕아지기 쉬우니, 깊은 뜻과 어울리는 언어 표현을 둘 다 겸비하기는 어렵다.[47]

이와 같이 毛先舒(1620~1688)는 시의 의미가 깊어야 하며 시어의 표현은 잘 어울려야 한다고 하였다. 깊은 의미와 잘 조화되어 어울린 시어의 표현이 겸비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자신의 시 작법의 목표로 내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진지'한 시의 의미와 '조달'한 시어 선택을 시 작법으로 제시한 연천과 같은 생각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연천은 우리와 중국의 고전 비평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시 작법의 범주 속에서, 시의 의미와 시어 선택에 관심을 기울여 나름대로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시의 작법 논의에서 시의 의미와 시어 다음으로 연천이 관심을 보인 것은 '其氣流動'에서 보여준 시의 기상의 문제이다. 사실 시의 기상은 시의 의미와 시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시의 기운이나 기세, 분위기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의 기운, 기세, 분위기가 시인의 기상이나 기질, 기백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氣'를 시인의 기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其氣流動'의 뜻을, 시인의 기상, 기질, 기백이 막힘없이 자유롭게 흘러 움직여 시의 기운, 기세, 분위기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氣'는 시인의 기상, 기질, 기백의 뜻이 어울린 시인의 정신적 활력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연천의 '기'에 대한 생각은 다음에서 읽을 수 있다.

---

47) 毛稚黃曰 詞家意欲層深 語欲渾成 作詞大抵意層深者 語便刻劃 語渾成者 意便膚淺 兩難兼也 (王又華, 『古今詞論』)

www.kci.go.kr

> 무릇 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氣에서 나온다.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情에서 나타난다. 기는 하늘에서 나오고, 정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하늘과 사람이 묘하게 감응하는 것이 시에 앞서는 것은 없다.[48]

이렇게 연천은 시의 '出發'을 '氣'와 '情'에서 찾고 있다.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타고난 '기'와 환경과 학습에 의해 후천적으로 길러진 '정'의 조화 곧 하늘과 인간이 묘하게 감응한 시를 연천은 지향하였던 것이다.

> 시를 기에서 구하지 않고 辭에서 구하며, 정에 맡기지 않고 수식에만 전념하여 자연의 소리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49]

또한 시를 '기'와 '정'에서 구하지 않고, 시어의 짜맞춤이나 시 표현의 화려한 수식에만 힘쓴 결과 '自然之聲'이 담긴 참된 시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도 하였다. 연천은 이처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천적 기질과 후천적 노력으로 습득된 정서의 조화로운 결정체로서의 시를 자연의 소리가 담긴 최상의 시로 인식하면서, 하늘과 인간이 묘하게 감응하여 조화를 이룬 완벽한 구도의 시 세계를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연천이 시인의 정신적 활력으로서의 '기'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아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와 중국의 고전 비평에서 일찍부터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시문의 출발을 '기'에서 찾고자 한 것은 曹丕(187～226)가, "文은 氣를 위주로 하는데, 기의 청탁은 그 바탕이 있는 것이어서 억지로 이르게 할 수는 없다."[50] 라고 하여 文氣說을 내세운 후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그는 '기'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므로 자손에게조차 물려줄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 후로 이러한 생각은 중국 비평가들에게 영향력

48) 夫詩奚出乎 出於氣 奚發乎 發於情 氣出於天 情出於人 天人之妙感 莫是先焉(洪奭周, 『淵泉集』 권24, 「雜著 , <原詩> 上, 앞으로 <原詩> 인용 주석에는 <原詩>와 편명만 밝힐 것임.)
49) 不求諸氣而求諸辭 不任其情而滋其文 不得乎其自然之聲(<原詩>, 中)
50) 文以氣爲主 氣之淸濁有體 不可力强而致(曹丕, <典論 論文>, 『文選』, 권52)

www.kci.go.kr

있게 받아들여져 왔다.

우리 비평에서도 보면, “기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 배워서 얻을 수 없다.”[51], “시문은 기로써 주를 삼는다.”[52], “시는 기가 표출된 것이다.”[53], “문장은 기로써 주를 삼고, 법도를 다음으로 한다.”[54], “문장은 기를 주로 삼는데, 기가 부족하면 그에 따라 문장도 비루하고 허약하게 된다.”[55] 등의 예문에서, 역대 우리 비평가들이 시와 문장이 기의 소산임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시에서 ‘기’를 중시하였던 비평가들은 기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천적인 것이어서 자손에게조차 물려줄 수 없으며 후천적으로 배워서 얻을 수도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연천은 ‘기’가 하늘로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는 데는 생각을 같이하면서도, 그 단계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 작법의 실제에서 ‘기’의 ‘유동’을 언급하면서 ‘기’의 함양에도 관심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생각 역시 고전 비평에서 널리 주목받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다.

> 나는 일찍이 문장에는 才와 氣가 있으며 또 力이 있다고 말하였다. 文才는 고금의 차이가 없으나 문장의 힘에는 차이가 있다. 文氣는 기를 수 있으나 문장의 힘은 강하게 할 수 없다.[56]

이렇게 연천은 문장에서의 ‘기’를 함양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기’의 함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하였다.

> 착한 일을 함으로써 복을 쌓아가는 것은 의리를 많이 축적함으로써 氣를 함양하는 것과 같다.[57]

---

51) 氣本乎天 不可學得(李奎報, 『白雲小說』)
52) 詩文以氣爲主(崔滋, 『補閑集』, 中)
53) 詩者氣之出也(尹鳳朝, 『圃巖集』, 권13, <權景賀北關詩後跋>)
54) 文章以氣爲主 法次之(南公轍, 『金陵集』, 권10, <與金國器載璉論文書>)
55) 文主於氣 氣不足 以師之 文以卑弱(吳載純, 『醇庵集』, 권4, <兪汝成漢雋文集序>)
56) 余嘗謂 文章有才有氣亦有力 才無古今 而力則有之 氣則可養 而力不可强(권2, 20)

www.kci.go.kr

연천은 이처럼 '기'의 함양은 의리를 축적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積善하여 致福하는 것처럼 일마다 모두 의리에 합하게 행하여 '기'를 함양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연천의 생각은 스스로도 지적하였듯이 孟子(BC 372~289)가, "나는 나의 浩然之氣를 잘 기른다. (…) 호연지기는 의리를 많이 축적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58] 라고 하였던 내용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기'의 함양에 대해서 중국의 비평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 옛부터 시인들이 氣를 함양하는 데는 각기 중점을 두는 곳이 있었다. 내면에서 쌓여서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숨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며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한 것을 사람들은 변별해내지 못한다.[59]

謝榛(1495~1575)은 이렇게 좋은 시를 쓰기 위한 시인들의 노력이 '기'의 함양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말하였다. 내면에 깊이 쌓아 올려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난 '기'가 시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연천이 '善'과 '義'의 축적을 통해 '기'를 함양하여 '유동'하는 정신적 활력으로 시에 표현하고자 한 것과 같은 생각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연천은 후천적 학습을 통하여 '기'를 함양할 수 있는 것으로도 이해하였으며, 적선하여 복을 쌓아가듯 의리를 축적하여 모든 일을 의리에 적합하게 행함으로써 '기'를 함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하늘로부터 타고난 '기'에서 시가 출발한다고 보았던 연천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를 함양하여 얻은 의리가 표현된 시를 지향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시의 의미, 시의 정신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고, 그 바탕 위에서 의리를 축적하여 함양한 '기'가 시인의 정신적 활력이 되어 시에서 아무런 막힘없이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기를 연천은 기대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57) 爲善以致福 猶集義以養氣也(권5, 35)
58) 我善養吾浩然之氣 (…) 是集義所生者(『孟子』, 「公孫丑章句 上)
59) 自古詩人養氣 各有主焉 蘊乎內 著乎外 其隱見異同 人莫之辨也(謝榛, 『四溟詩話』, 권3)

www.kci.go.kr

4. 시의 기능

시의 본질을 살피고 시의 작법을 구체화한 다음, 연천이 관심을 기울인 것은 '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답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其用則以感人爲主 其功歸於興勸懲創 其效至於移風易俗'라고 하여, 시의 '用, 功, 效'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시의 기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연천이 제시한 '感人'과 '興勸懲創', '移風易俗'은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시의 기능으로 어울리고 있다. 시의 쓰임과 시의 공과 시의 효과가 서로 연결고리를 이루면서 시의 기능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연천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을 시의 쓰임으로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내용으로서의 '흥권징창'을 시의 공으로 삼으며, 또한 시의 교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풍역속'을 시의 효과로 하여, 이른바 유가적 이상사회 또는 적어도 자신이 꿈꾸었을 그러한 세상을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예문에서 연천이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 시에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극치를 구할 수 있고, 천지신명에 감응하여 통할 수도 있으며, 나그네와 주인이나 임금과 신하 사이도 화합하게 할 수 있고, 풍속을 옮기고 고쳐 가지런하게 할 수 있으며, 사람을 고무시키고 흥을 불러일으키는 교화도 융성하게 할 수 있다.[60]

연천은 이처럼 사람을 감동시키고, 천지신명에 감응하게 하며, 인간 관계의 화합에 기여하게 하고, 풍속을 옮기고 고치게 하며, 인간의 의지를 고무시키고 흥이 일어나게 하는 데에 시의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感人'의 극치가 시라고 하면서 '移風易俗'을 완성하고, '鼓舞作興' 즉 '興勸懲創'의 교화도 왕성하게 이루어 내는 것 등이 모두 시

60) 感人之極致 必於詩求之 上下神祇 於是乎格之 賓主君臣 於是乎和之 移風易俗 於是乎成之 而鼓舞作興之化 亦於是乎盛焉(<原詩>, 上)

www.kci.go.kr

의 기능의 범주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연천은 시가 인간과 사회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시의 기능적 측면을 극대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시의 쓰임은 '感人'을 위주로 하고, 시의 공은 '興勸懲創'을 내용으로 교화를 완성하는 것이며, 시의 효과는 '移風易俗'을 이루어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것임을 밝혔던 앞서 제시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서로 연결고리를 이루며 내용을 보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시의 쓰임, 시의 공, 시의 효과를 제시한 연천의 생각들은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그 내용이 시의 기능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의 기능으로 가장 먼저 언급한 '其用則以感人爲主'에서 보다시피, 시의 쓰임, 용도, 사명 등에 관한 연천의 생각은 '感人'에 집중되어 있다.

> 詩三百에서부터 漢晋의 風謠에 이르기까지 비록 격조의 높고 낮음이 다르고, 정취의 우아하고 비리함이 다르긴 하지만, 시가 진지하고 조달하며 유동하여 사람을 감동시키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다.[61]

연천은 이처럼 시의 격조와 정취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시의 의미가 '진지'하고 시어가 '조달'하며 시의 기상이 '유동'하게 되어 시가 '感人'에 이르게 되는 점은 달라진 적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시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으려면 시의 작법에서 살펴보았던 그러한 '意, 辭, 氣'가 제대로 담겨 있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시의 쓰임이 '感人'에 이르기 위해서는 性情과 天機에서 출발하여야 함도 언급하였다. 연천은, "시의 쓰임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 있다"[62]고 하여 '감인'의 시의 쓰임을 강조하면서, 시의 출발이 성정에 근본하지 않고 시의 발원이 천기에서 연유하지 않으면 시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 도달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63] 그리하여 시가 '감인'의 사명을 다하기

61) 自三百篇已下 至于漢晋之風謠 雖高下異調 雅俚殊趣 至其眞摯條達流動而感人者 亦未始不同也(권4, 5)
62) 詩之爲用 主於感人(권3, 8)
63) 주 20) 참조

www.kci.go.kr

위해서는, 시의 본질로서의 '성정'과 '천기'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그 바탕에서 시 작법의 기본인 시의 의미의 '진지'함과 시어의 '조달'함, 그리고 시의 기상의 '유동'함이 제대로 표현되어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천은 문장을 논할 때는 가르침을 밝히는 것을 주로 하고, 시를 논할 때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을 주로 한다고 한 마디 말로 다할 수 있다고 하여,[64] '論詩'의 기준이 '감인'에 있음도 언급하였다. 이렇게 논시의 기준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하였던 연천이었기에, 격식에 얽매이고 수식에 전념하여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자연의 소리도 잃게 된 까닭이 律詩에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기도 하였다.

> 율시로써 사람을 감동시키기를 구한다는 것은 허수아비에게 말을 하라고 하고 말을 묶어놓고 빨리 달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때문에 나는 知詩者가 나타난다면 비록 오늘날의 巷謳街謠에서는 볼만한 시를 구할 수 있을지라도 결단코 오늘날의 율시에서는 좋은 시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65]

이렇게 '感人'의 논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율시를 강하게 비판하였던 연천은, 땅에다 일정하게 금을 그어놓고 걸음걸음 그에 따라 걷도록만 한다면 천하에 어찌 다시 천리마가 있겠는가라고 빗대어 설명하면서,[66] 자유로운 표현으로 삶의 진실을 노래하고 자연의 소리를 회복해야 '감인'할 수 있는 참다운 시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도 하였다.

연천은 이와 같이 시의 쓰임, 용도, 사명이 '감인'에 있음을 밝힌 다음, 무엇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바로 '其功歸於興勸懲創'이라 하여 시의 공, 공로, 공적이 '흥권징창'에 귀착된다고 본 것이다.

---

64) 論文 而主於明敎 論詩 而主於感人 一言而盡矣(권3, 57)
65) 持是以求感人 其奚異偶人而求語 縛馬而求驟者乎 故余妄竊 謂知詩者出 雖或求之今日之巷謳街謠 而決不求之今日之律詩也(<原詩>, 中)
66) 若使畫地表矩 而步步求諸是也 則天下寧復有驊騮騏駬也哉(<原詩>, 中)

www.kci.go.kr

여기서 '興'은 도덕적 의지나 감정을 감흥시키고 감동시켜 분발하게 하는 의미이고, '勸懲'은 권선징악의 의미이며, '創'은 자극하여 경계하고 풍자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사람을 감동시켜 분발하게 함으로써 의지나 감정을 드러나게 하고, 권선징악하며, 세상을 풍자하는 그러한 내용이 곧 '흥권징창'임을 알 수 있다. 곧 뜻을 일깨워 개인의 덕성을 닦게 하고, 사회 정의를 올바로 세우며, 사회 지도층의 정치적 득실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귀착된 것이 바로 시의 공이 된다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흥권징창'의 공을 바탕으로 하여 시는 '感人'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연천의 생각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 문장은 가르침을 밝히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 공자는 시를 논하면서 興을 우선적으로 말했다. 흥이란 감동시켜 분발하게 하는 것을 이른다. 또 興, 觀, 群, 怨은 모두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로 귀착된다.[67]

또한 연천은 이렇게 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孔子가 『論語』에서 언급한 '興觀群怨'[68]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로 귀착된다고 하였다. 공자 이후 유학자들에 의하면, '興'은 도덕적 의지나 감정을 감흥시키는 것이고, '觀'은 풍속의 성쇠나 정치적 득실을 관찰하는 것이며, '群'은 여럿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 학문과 덕행을 힘써 닦아나가는 것이고, '怨'은 정치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풍자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결국 '흥관군원'은 인격의 도야는 물론 현실 생활의 반영이나 정치 지도층에 대한 풍자의 측면에서 이해되었던 것이다.[69]

이렇게 보면 앞서 연천이 '感人'을 위주로 한 시의 공이 '興勸懲創'에 귀착된다고 한 것과, 여기서 '흥관군원'이 '感人'에 귀착된다고 한 것이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흥권징창'은 곧 '흥관군원'의 다른 표현

67) 文以明敎爲本 詩以感人爲尙 夫子論詩 首言可以興 興也者 感發之謂也 且興觀群怨 其歸皆感人也(권3, 56)
68)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論語』, 「陽貨」)
69) 정대림, 『한국고전 비평사』, 태학사, 2001, 69~70쪽 참조.

www.kci.go.kr

인 셈이다. 이는 연천의 시론이 孔子의 시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연천이 시의 쓰임인 '感人'의 실질적 내용의 본바탕을 '흥권징창'에 두고 그것을 시의 공으로 삼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연천은 『詩經』은 물론 초나라의 『離騷』나 한나라의 古詩, 당나라의 樂府나 歌行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분강개하여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고 또한 춤추듯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거나 웃으면서 흥취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70] 그러한 역대의 시들이 '흥권징창'을 바탕으로 '감인'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흥권징창'에 시의 공을 돌렸던 연천은 시평의 실제에서, 풍자하는 것에 해당되는 '創'을 기준으로 시구 평가에 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천하의 어지러움은 도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적지 않으며, 도적의 봉기는 민생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난 것이 적지 않다. 민생의 어려움은 또한 위정자들의 사치로 말미암은 것이 적지 않다. 杜甫의 시에는, '오직 검소한 덕 펴면 되는 일, 도적도 본시 이 나라 착한 백성인 걸'이라는 것이 있다. 아름답다, 이 말이여. 이를 어찌 변변하지 못한 하나의 시구로만 보겠는가.[71]

연천은 이와 같이 백성들을 도적으로 내몬 것이 위정자들의 사치에 있음을 풍자한 杜甫(712~770)의 <有感> 五首 중 세 번째 시의 尾聯을 아름답다고 극찬하고 있다. 두보 시의 공인 '創', 즉 풍자를 통해 '감인'에 도달한 두보의 시적 성과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시에서 이처럼 '흥권징창'의 공을 언급했던 연천의 생각은 고전 비평에서 보편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70) 三百篇尙矣 楚人之騷 漢人之古詩 唐人之樂府歌行 尙有可以慷慨悲惻 嗚咽而流涕者 亦有可以僊然而神逞 逌然而興會者 其於感人 猶庶幾焉(권3, 56)

71) 天下之亂 鞏不由於盜賊 盜賊之起 鞏不由於民困 民生之困 鞏不由於在位者之奢侈 杜子美詩曰 不過行儉德 盜賊本王臣 旨哉 言乎 是豈可以區區詞章視哉(권6, 12)

www.kci.go.kr

>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며, 찬미하고 풍자하며 권선징악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 때문에 지가 확립되지 못하고, 학문이 순정하지 못하며, 큰 도를 알지 못하고, 임금을 바른 길로 모시며 백성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시를 지어서는 안 된다.72)

정약용은 이렇게 교화의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시가 아니라고 하면서, 개인적 수양을 바탕으로 학문을 닦고 치국의 도를 깨달아 올바른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시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급한 '美刺勸懲'은 지도층의 정치가 잘된 것은 찬미하고, 잘못된 것은 풍자하며, 권선징악하여 사회를 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하겠는데, 이는 시의 공으로 연천이 언급한 '흥권징창'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晋·宋 이후의 詞人들은 편벽되고 천박하여 比興의 뜻을 잃어버렸으며, 흥·관·군·원의 취지를 상실하였으니, 한결같이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된다. (…) 시의 쓰임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을 주로 한다.73)

淸末의 시인인 黃遵憲도 이렇게 '흥관군원'의 취지를 상실한 시는 본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시의 쓰임이 '感人'에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렇게 보면 대체로 고전 비평에서 연천을 비롯한 우리나 중국의 비평가들은 시의 쓰임이 '감인'에 있고, 그 공이 '흥권징창'에 있음을 비중 있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감인'의 시의 쓰임에 주목하고, 시의 공을 '흥권징창'에서 찾았던 연천은, '其效至於移風易俗'이라 하여 시의 효과를 '移風易俗'에서 찾았다. 그리하여 '흥권징창'의 공으로 '감인'의 사명을 다한 시의 효과로 펼쳐진 풍속이 개량된 사회, 나쁜 풍속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 교화되고 순화

---

72) 不愛君憂國 非詩也 不傷時憤俗 非詩也 非有美刺勸懲之義 非詩也 故志不立 學不醇 不聞大道 不能有致君澤民之心者 不能作詩(丁若鏞, 앞의 책, 권21, <寄淵兒>)

73) 惟晋宋以後 詞人淺薄狹隘 失比興之義 無興觀群怨之旨 均不足學 (…) 其用以感人爲主(黃遵楷, <先兄公度先生事實述略>)

www.kci.go.kr

된 세상을 연천은 지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풍역속'이란 말은 원래 음악의 효용을 밝히는 데서 사용되어 오던 것이다.

> 음악은 성인들이 즐기는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선도할 수 있고, 그들을 깊게 감동시킬 수 있으며, 그들의 그릇된 풍속을 바꿀 수 있다. 때문에 선왕들은 음악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자 하였다.[74]

이렇게 禮樂과 節度에 대해 언급하면서, 음악의 효용을 '善民心, 感人深, 移風易俗'에서 찾고 있다. 백성들의 마음을 선하게 교화하고, 그들을 깊이 감동시키며, 그들의 그릇된 풍속을 개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의 효용이라는 것이다. 또한 『孝經』에서는, 풍속을 올바른 쪽으로 바꾸는 데에는 음악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도 하여[75] 음악의 효용 가치를 역시 '이풍역속'에서 찾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시에서 '이풍역속'의 효용을 찾은 것은 『詩經』 <大序>에 나타나 있다.

> 그러므로 잘잘못을 바로잡고 천지를 움직이며 귀신을 감동시키는 데는 시보다 더 적합한 것이 없다. 선왕들은 시로써 부부간의 도리를 다스리고, 효도와 공경을 이룩하였으며, 인륜을 돈독히 하고, 교화를 아름답게 하며, 풍속을 개선하였다.[76]

이와 같이 시가 '感人'의 차원을 넘어 천지와 귀신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시의 효과로 '이풍역속'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음악과 시의 효용이 '감인'하여 '이풍역속'하는 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

74) 樂也者 聖人之所樂也 而可以善民心 其感人深 其移風易俗 故先王著其教焉(『禮記』, 「樂記」, 第十九)
75) 移風易俗 莫善於樂(『孝經』, 「廣要道章」)
76) 故正得失 動天地 感鬼神 莫近於詩 先王以是 經夫婦 成孝敬 厚人倫 美教化 移風俗(『詩經』, <大序>)

www.kci.go.kr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중국이나 우리의 고전 비평 논의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기도 하다.

연천은 시의 기능의 측면에서 시의 효과가 '이풍역속'에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풍역속'은 시를 통하여 완성된다고도 하였다.[77] 그리하여 시가 '이풍역속'의 효용을 발휘하여 세상을 올바르게 교화하는 데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풍속을 해치는 폐단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우려하기도 하였다.

> 제나라 양나라의 <子夜曲>과 <讀曲歌>, 원나라 사람의 <琵琶記>, <會眞記>의 음란한 노래와 화려한 어구는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격양시켜 미치게 만드는데, 역시 삼백 편과 가지런히 할 수 있는 것들인가? 어찌 이들뿐이겠는가. 비록 오늘날의 길거리에서 부르는 노래라 할지라도 무릇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모두 시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이 감동시키는 것은 같다 할지라도, 느끼게 되는 바의 사특함과 올바름은 같지 않다. 만약 올바르지 않다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깊어지면 질수록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 그만큼 더 심하게 된다. 이것이 성인께서 정나라 노래를 쫓아 버린 까닭이다. 이것이 성인께서 시를 논할 때 모름지기 '思無邪'를 핵심으로 삼은 까닭이다.[78]

연천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격양시키고 감동시키는 데에는 사특하거나 올바른 느낌이 각각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음란하거나 화려함만 내세워 사람을 날뛰게 하고 미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깊어지면 결국 사람의 마음을 해치고 풍속을 어지럽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聖人은 음란한 풍속을 부추기는 정나라 노래를 쫓아 버리고 '思無邪'의 정신을 논시의 기준으로 삼아 올바른 풍속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교화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고 하면서, 시의 효용으로서의 '이풍역속'에 대한 생각을

---

77) 주 60) 참조

78) 齊梁之子夜讀曲 元人之琵琶會眞 淫詞麗語 皆使人躍然而狂 斯亦可以儕於三百篇歟 曰奚獨是也 雖今日之閭巷 謳謠 凡可以感人者 皆詩之流也 然其感則一也 而所感之邪正不同 苟非正也 則感人愈深 而其壞人之心術也愈酷 此聖人所以放鄭聲也 此聖人所以論詩 而必主乎思無邪也 (권3, 56~7)

www.kci.go.kr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또한 연천은 문장에 시가 있음을 음식에 술이 있음에 비유하면서, 사실을 기록하거나 말을 엮어나가는 데는 문장으로도 부족함이 없지만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는 시와 같은 것이 없으며,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하는 데는 음식으로도 부족함이 없지만 기쁨을 함께하는 데는 술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런 까닭에 종묘와 조정의 행사에 쓰이는 것과 제사와 연회에 중심이 되는 것은 오히려 술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나라를 망치고 집을 기울게 하며 사람의 마음을 옮기게 하는 해로움 또한 시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기도 하였다.[79]

이렇게 '移風易俗'의 시의 효과를 내세우면서 나쁜 풍속을 개량하여 성정이 순화되고 온유돈후한 교화가 이루어진 세상을 지향하였던 연천은, 시가 '亡國敗家 移人心術之害'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면서 '移風易俗'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보인다.

5. 맺음말

淵泉 洪奭周가 그의 저서『鶴岡散筆』에서 단순하게 차례대로 나열해 놓은 시의 '本, 發, 意, 辭, 氣, 用, 功, 效'에 대한 8가지 시론의 내용들을 시의 본질, 시의 작법, 시의 기능의 세 항목으로 분류한 다음, 각각의 내용들의 시론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시의 본질과 관련하여 연천은 시가 性情에 근본을 두고 天機에서 발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천기가 촉발한 성정의 표현이나 성정과 천기의 조화의 측면에서 시의 본질에 접근하였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시인의 내외적인 환경과 시적 배경이나 소재 등에서 얻어낸 우주관, 자연관, 세계관 등을

79) 今夫文之有詩 猶飮食之有酒也 紀事纂言 文非不足也 而感人者莫如詩 飢焉而飽 渴焉而潤 飮食非不足也 而合歡者莫如酒 是故 宗廟朝廷之所用 祭祀燕饗之所主 不在彼而在此 然亡國敗家 移人心術之害 亦往往不在彼而在此 嗚呼可不愼歟(<原詩>, 上)

www.kci.go.kr

바탕으로 한 천기의 내용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시인의 성정을 촉발하여 시인의 시의식을 자극함으로써 시가 이루어진다는 작시 과정으로 이어져 있기도 하였다.

시의 작법에 대한 논의에서 연천은, 시의 의미는 '眞摯'해야 하는데, 그 '진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는 세상의 교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어는 '條達' 곧 조리있고 통달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의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시어의 선택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시의 '氣'는 '流動'해야 한다고 하여, 시인의 정신적 활력이 막힘없이 자유롭게 흘러 움직여 시에 표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천은 본래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와 함께 후천적으로 의리를 축적하여 함양한 '기'의 중요성도 인정하였는데, 그러한 '기'가 정신적 활력이 되어 '유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의 기능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쓰임은 '感人' 곧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에 있다고 하였고, 시의 功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興勸懲創'에 두었고, 시의 효과는 시의 교화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移風易俗'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연천은 이들 시의 쓰임, 功, 효과의 내용들이 시의 기능으로 서로 어울리면서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기능으로 어울린 시를 통해 연천은 자신이 꿈꾸었을 온유돈후한 성정으로 순화된 세상, 그 유가적 이상이 실현된 사회를 지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시의 본질과 작법과 기능을 중심으로 연천은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시론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시론의 내용들은 중국이나 우리의 고전 비평의 전개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어오던 것이었다. 따라서 연천은 전통적으로 논의되었던 해당 내용들을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간추려 자신의 시론으로 정리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앞으로 연천이 정리한 시론의 내용들과 중국 비평에서의 관련 내용들을 보다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며, 우리 고전 비평에서의 연천 시론의 위상도 아울러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시의 '성정'과 '천기'를 내용으로 한 시의 본질론을 중심으로 연천 당대의 문학 운동과의 관련성이나 그 본질론의 철학적 분석

www.kci.go.kr

등에 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천이 제시한 시론의 내용들이 당시에 시평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론의 내용들이 실제로 연천 자신의 시평 전개나 다른 비평가들의 시평 활동에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金祖淳,『楓皐集』
金昌協,『農巖集』
南公轍,『金陵集』
南有容,『雷淵集』
謝 榛,『四溟詩話』
徐居正,『東人詩話』
嚴 羽,『滄浪詩話』
吳載純,『醇庵集』
柳夢寅,『於于野談』
劉 昺,『中山詩話』
劉 勰,『文心雕龍』
尹鳳朝,『圃巖集』
尹春年,『詩法原流體意聲三字註解』
李奎報,『白雲小說』
李宜顯,『陶谷集』
李 瀷,『星湖先生全集』
丁若鏞,『與猶堂全書』
崔 滋,『補閑集』
洪奭周,『淵泉集』
洪奭周,『鶴岡散筆』
洪良浩,『耳溪集』

2. 논문 및 저서

강석중,「홍석주의『학강산필』에 나타난 문학관에 대하여」,『한국학논집』37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3.

권오순,「연천 홍석주의 한시 연구」,『한문고전연구』6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0.

금동현, 19세기 전반기 산문 이론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동방한문학』25집, 동방한문학회, 2003.

김철범,「연천 홍석주의 고문론」,『한국한문학연구』12집, 한국한문학회, 1989.

_____, 홍석주 고문의 예술적 특징」,『한국한문학연구』22집, 한국한문학회, 1998.

박재경,「홍석주의 학문 경향과 문학론」, 서울대 석사논문, 2003.

임종욱,「연천 홍석주론」,『조선 후기 한시 작가론』2, 이회문화사, 1998.

_____, 홍석주의『학강산필』에 나타난 문학론 연구」,『한국문학연구』21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9.

정대림,「홍석주의 <원시>에 대하여」,『한문학논집』10집, 단국한문학회, 1992.

_____,『한국고전비평사』, 태학사, 2001.

정 민, 연천 홍석주의 학문 정신과 고문론」,『한국학논집』16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9.

www.kci.go.kr

정요일, 「천기의 개념과 천기론의 의의」, 『한문학의 논리』, 일조각, 2009.
최신호, 「연천 홍석주의 문학관」, 『동양학』 13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3.
_____, 「홍석주의 <원시>에 있어서 시발어정의 문제」, 『한국한문학연구』 19집, 한국한문학회, 1996.

www.kci.go.kr

A Study on Hong, Seok-ju(洪奭周)'s Poetics

Chung, Dae-lim

This study inquires into the Yeon-cheon(淵泉) Hong Seok-ju(洪奭周)'s criticism of poetry in the aspect of the poetic nature, versification, and function.

About the poetic nature, it is based on the innate nature and emotion(性情) - poet's poetic consciousness, and then originate from the cheon-ki(天機) as the realization of the truth of space, reason of nature, and world's duty.

About the versification, poetic meaning(意) must be expressed truly and frankly (眞摯), poetic words(辭) must be transferred logically and correctly(條達), and poetic spirit(氣) must be flowed and moved freely that not be blocked(流動).

About the poetic function, poetic use(用) is impressing people(感人); poetic merit(功) is inspiring reader's heart, making them endeavor, encouraging the good and punishing the evil, and satiring the world(興勸懲創); poetic effect(效) is changing customs toward good way(移風易俗).

In the future, there remain comparing and examining criticism of poetry of Hong Seok-ju and China. Also, it is thought that how Hong Seok-ju's criticism of poetry is applied to actual criticism must be considered.

Key words : Yeon-cheon(淵泉), Hong, Seok-ju(洪奭周), nature and emotion(性情), cheon-ki(天機), meaning(意), poetic words(辭), spirit(氣).

접수일자: 2010. 8. 30
심사기간: 2010. 8. 30～2010. 11. 20
게재결정: 2010. 11. 20

www.kci.go.kr